

시흥·광주 광역콜버스 서비스 개시

- 9월 20일부터 카카오T 앱(APP) 사전예약... 올해까지는 무료 탑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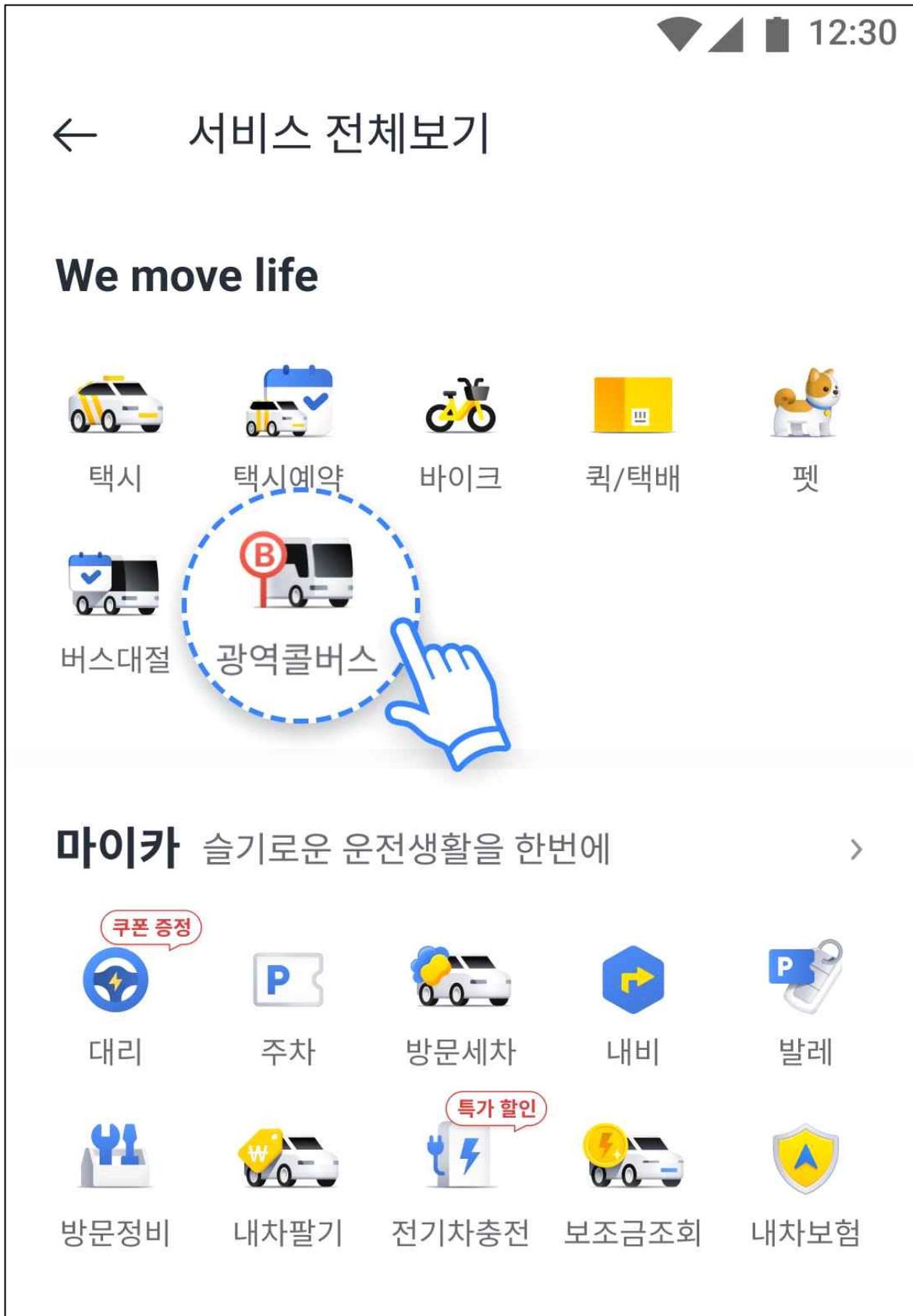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대광위)는 9월 20일(수)부터 “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(이하 광역콜버스)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.
 - 광역콜버스는 광역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, 지난 6월 국토부, 경기도, 지자체 협약식 이후,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.
- 이번에 개시되는 시범사업 지역은 시흥시 MTV~사당역(9.27~), 광주시 신현동~양재역(10.4~) 등 2곳이며 수원, 용인, 화성 등 나머지 3곳은 연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.
 - 올해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해 무료로 탑승하고, 내년 부터는 기존 광역버스와 유사하게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,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카카오T 앱(APP)의 홈 화면 > 전체보기 > 광역콜버스 아이콘에서 정류장·좌석·시간 등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으며, 사전예약(매달 16일 정오~20일 정오)으로 출·퇴근 등의 정기적인 탑승이 가능하고, 일반예약으로는 일회성 탑승이 가능하다.
 - 내년 6월부터는 일반정류장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더 가까운 가상 정류장에서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.
- 대광위 안석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“광역콜버스는 광역권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로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”라며,
 - “이 외에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방현하 (044-201-5100)
		담당자	사무관	현혜지 (044-201-5108)
			주무관	김영식 (044-201-5110)
<한국교통 연구원>	광역·도시교통연구본부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	책임자	센터장	박준식 (044-211-3048)
		담당자	연구원	최영규 (044-211-3618)
<경기도>	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인치권 (031-8030-3710)
		담당자	팀 장	한승민 (031-8030-4301)
<시흥시>	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	책임자	과 장	정석희 (031-310-5140)
		담당자	팀 장	김연옥 (031-310-2755)
<광주시>	국토교통국 교통과	책임자	과 장	김수라 (031-760-8780)
		담당자	팀 장	김동환 (031-760-8789)



참고1

카카오T 앱(App) 광역콜버스 아이콘(대용량 파일 별첨)



참고2

광역콜버스 시범사업 노선도 (대용량 파일 별첨)

